

Jan-Feb-Mar 2010

# NEWS

# LETTER

Inside this issue...

폴 클레멘트 헌트  
-Head of UNEP FI

하이라이트:

1. 공공메커니즘을 통한 민간부분 투자의 확대
2. 투자자들, 기후정책의 빠른 시행 요구

새로 나온 보고서  
-RPI  
-Green building

APTF에서 추천한 보고서  
-지속가능보고지침에 대한 이해  
-기후변화시대에 대처하는 방법

ESRA코스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사회적 리스크 분석  
E-learning course

서명기관 동향  
-신규 서명기관  
-서명기관 활동

국내 서명기관 활동

Korea Group 소식

*"Some 85 per cent of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to cope with climate challenges must come from private sources. In effect, the battle over climate change will be won - or lost - in the hands of private investors."*

-Bjarne Graven Larsen,  
CIO of ATP, Denmark's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

## Message from Paul Clements-Hunt, Head of UNEP FI

### 포스트 코펜하겐을 위한 준비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5) 이후, 투자자들과 금융서비스 기관들은 1월과 2월에 걸쳐 Post-COP15를 위한 준비 ('what's next')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 중순, UNEP FI 도 UN PRI와 공동으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였으며 투자자들 및 금융 관계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도출된 데에 대한 대안을 10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과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에너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대물림 등 지구의 미래를 위한 주제들은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함께 이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열악한 자금지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목재, 수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과 같은 새로운 자산을 둘러싼 시장 활동노력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Green Economy Report(GER)에 금융부분을 더하려는 UNEP FI의 노력은 전세계 은행, 보험, 그리고 투자부문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계속 연구될 예정입니다. GER은 UNEP의 Green Economy initiative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2010년 후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태계보호가치관련 프로그램(TEEB)의 보고서 역시 스텐 보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생태계 시스템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변화들이 가져올 위협 및 기회를 분석해 발간될 것 입니다.

\*참고 TEEB보고서(2009년11월) 10대 제안사항

- ▷ 생태학적 기반산업에 투자
- ▷ 시장을 통한 수익 보상방안 강구
- ▷ 환경에 위해를 주는 보조금 개혁
- ▷ 제도 및 가격체계를 통한 투자비용 및 손실 회수
- ▷ 생태보호지역에 각종 이익을 제공
- ▷ 산림황폐화 및 개간 중지
- ▷ 열대산호 보호
- ▷ 전 지구적 어업 보호 및 어종 복원
- ▷ 생태계 파괴와 농촌지역 빈곤과의 깊은 상호관계를 인정
- ▷ 코펜하겐에서 산림카본(forest carbon) 거래 인정



## 공공 부문 메커니즘을 통한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Copenhagen, 11 December 2009

COP15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UNEP FI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관 투자자 그룹 (I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이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들이 다루어 졌는데 그 중 민간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약 85 퍼센트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행사는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공공 부문 자금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진 제 15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방청객 주요 질의 사항>

- ◆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빌딩, 산림보호, 등 인프라 구축에 등에 어떻게 민간 부문이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까?
- ◆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탄소 시장으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 ◆ 탄소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 공적 자금과 민간자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패널들의 주요 의견>

- ◆ 2009년 투자자와 금융관계자들은 이미 민간 투자부분에 대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 노력들 중 하나의 결과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의 촉구서' 이다. 이 성명서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구체적인 목표감축량에 대한 국제적 협의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서>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need\\_agreement.pdf](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need_agreement.pdf)
- ◆ 정부 협상가들은 기후변화 관련 활동의 정부 자금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 자금의 잠재력에 대한 이상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가들은 오로지 공공 부문 자금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두 부문 모두의 자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유연한 메커니즘에서 창조된 탄소시장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민간부문의 자금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위험요소 저감 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민간 부문 자금 동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주요패널>

정래원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닉 로빈스 (HSBC 기후변화센터장), 카스텐 사치 (UNFCCC), 페르난도 투엘라 (멕시코 환경정책부 차관), 롬 레이크 (APG Asset Management)



## 포스트 코펜하겐회의, 세계 최대 투자자들 기후정책의 빠른 시행 요구

2010년 1월 14일, 뉴욕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뒤이어 열린 UN 투자자최고기후회의에서 세계 최대 투자자들은 미국 등 세계 각 국에게 저탄소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국가 기후정책의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탄소 경제 투자 촉진을 위한 이번 성명서는 19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소속된 4개 그룹이 작성했다.

### 4개 그룹 명단

- 기후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네트워크 (INCR: Investor Network on Climate Risk)
-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그룹 (I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 투자자그룹 (IGCC: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 UNEP FI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이 회의에서 4개 그룹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시킬 탄소배출제한, 에너지효율 증진, 재정메커니즘 설정 및 기타 관련 정책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자회의(Investor Summit on Climate Risk)에서 발표되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토드 스텐(Todd Stern) 미 기후변화특사, 수십억 달러 대의 투자자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와 함께 450명의 국제 투자자들이 유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 <주요 내용>

- ◆ 장·단기 탄소 감축 목표량 수립
- ◆ 저탄소 투자를 유도할 효과적인 탄소배출세 설정
- ◆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및 무공해 차량과 청정연료의 보급을 가속화 할 에너지·수송정책 수립
- ◆ 대규모 (특히 개도국에서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의 개발
- ◆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기후관련 적응을 도울 수단의 보급과 재정 지원
- ◆ 기후관련 위험정보 및 대응전략 공유



## 새로 나온 보고서

### • *Responsible Property Investing(RPI): Metric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책임있는 자산투자 행동측정을 위한 매트릭스)



RPI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ESG이슈(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합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주요내용>

- RPI를 정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방법,
- 어떻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 통합할 수 있을까?

Published: 2010 | By: UNEP FI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responsible\\_property\\_toolkkit2.pdf](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responsible_property_toolkkit2.pdf)



### • *Green Buildings and the Finance Sector*

(그린빌딩과 금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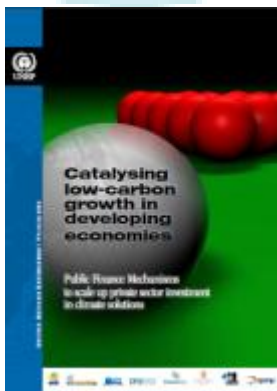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북미 지역(캐나다,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의 그린빌딩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린빌딩분야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잠재 장애 및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그린빌딩분야에 진입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Published: 2010 | By: UNEP FI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greenbuildings.pdf>

### • *Catalysing low carbon growth in developing economies*

(개도국을 위한 저탄소 성장 촉진 매커니즘)



개발도상국가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과거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러한 매커니즘이 어떠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공공 부문 금융 매커니즘이 국제적인 저탄소 경제를 이뤄내기 위해 디자인 요소, 제도적 구조 그리고 매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민간 부문 투자를 최대로 활용하였는지를 제시한다.

Published: 2009 | By: UNEP FI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atalysing\\_lowcarbon\\_growth.pdf](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catalysing_lowcarbon_growth.pdf)



APTF에서 추천한 publication I

## Understanding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ests (지속가능 보고지침에 대한 이해)



### 1. 서론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은 비영리단체(NGO)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ESG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 요인 그리고 리서치 회사 (research firms), 측에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요청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가지는 혜택과 나아가 그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 정보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11개의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주로 ESG 리서치 회사와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와 같은 공개 initiative의 요청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료이다.

## 2. 본론

### 2-1.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가지는 혜택

- 보다 많은 대상과 지속 가능성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많은 고객들과 종업원을 유인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ESG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제3자로부터 ESG 노력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덱스에 편입됨으로써 추가적 투자기회 접근이 가능하다.
- 리서치 회사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의 잠재적 기회들을 모색할 수 있다.
- 사회 내에서 영업 라이선스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내 영업 허가증을 재차 확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다른 방식을 통한 대체가 힘들 것이다.



## 2-2. 참여자들의 장애 요인

- **기업의 자원** : 지속 가능성 보고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시간, 담당 직원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 **요청된 자료의 특성** : 요청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참여도가 영향을 받는다. 자료가 특정 analyst을 대상으로 요청되었을 때, 요구 사항 전달에 있어서 명확성이 높을 때,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요청일 경우 그리고 이 외의 다양한 사항들에 따라 기관들의 참여 용이성이 영향을 받는다.

## 2-3. 요청된 자료들 사이의 우선 순위

기업들은 ESG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다음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요청에 응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 내부적 사항	리서치 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가능한 자원</li> <li>• 제공된 시간</li> <li>• 정보의 유효성</li> <li>• 예상 준비 시간</li> <li>• 회사의 필요와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성</li> <li>• 고객</li> <li>• 리서치 결과상품</li> <li>• 제공된 피드백</li> <li>• Analyst와의 관계</li> <li>• 기밀 보호</li> <li>• 참여의 용이성</li> </ul>

## 3. 결 론

### 제언

금융기관들의 보다 높은 참여율을 위해 금융 기관뿐 아니라 정보 요청 기관에서의 정보 요청 과정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 요청간의 시간적 분산
- 요청에 대한 회신까지의 적절한 시간 배정
- 온라인 상으로 정보 수집 활성화
- 정보 요청의 간략화
- 정량 계량화에 대한 작업 표준화 노력
- 각 금융기관의 컨택트 포인트 지정

UNEP promotes environmentally sound practices globally and in its own activities. This publication is printed on chlorine free paper using eco-friendly practices. Our distribution policy aims to reduce UNEP's carbon footprint.



APTF에서 추천한 publication II

## How finance copes with the ticking clock

(기후변화에 금융이 대처하는 자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해야 하는 G8 국가들

이 국가들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혁명적 수준이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자산관리시 반영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도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리포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 리스크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제안과 함께 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결과물을 모았습니다. 위협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1.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자산관리시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명확하고 장기적인 정책이 입안되도록, 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다.
- 이미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툴'을 개발한 투자자들도 있다.
- 투자자간 협력이 필요하다(정보공유 등).



### 2. 충분한 근거자료

-IPCCC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예측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선 그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응활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2030년까지 최소 연간 300~400억 달러가 필요한데, 미래의 투자흐름을 예측해 볼 때, 이중 약86%가 민간자원에서 조달될 것이므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명확하고 장기적인 정책들

- |                        |                           |
|------------------------|---------------------------|
| 1) 국제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틀    | 2)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전반으로의 확장 |
| 3) 기본적인 R&D에 대한 공적자금지원 | 4) 개도국들의 기술전환에 대한 공공지원    |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발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많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경영상 중요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산업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산업도 있다.



## 4. 시장선도국가(기업)

-투자자들에게는 기후변화 자체의 리스크나 기회보다 개별기업(개도국의 경우에는 국가단위)의 반응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라고 USB투자은행은 결론지었다. 실제로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200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기후변화를 더욱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었다.

## 5. 선구적인 투자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몇몇의 투자자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 리먼브라더스: 환경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재무적인 정보로 변환.
- 도이치증권&골드만삭스: 기후변화에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방법을 만듦.
- 소시에테제네럴(Société Générale): 평가방법을 만들어 자동차부분에 적용.

## 6. 투자분석 시 고려사항

### 1) BRICs국가들

- 브라질 : 산림보호가 중요. 재생에너지는 조만간 중요해 질것.
- 러시아 : 잠재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인도 : 재생자원산업에 긍정적인 전망 존재. 부정적으로는 기후변화(온난화)에 민감한 기후적 특성을 가짐.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도 소극적임.
- 중국 : 기업들의 관심은 적지만, 정부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음.

### 2) Adaptation

탄소비용에 비해 위험·기회에 대한 리서치 부재-연구가 필요하다.

<case>

- Hermes는 영국의 부동산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를 실시
- Acclimatise는 IBM과 함께 관련 체크리스트를 개발

### 3) 공급망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향만 분석할 경우 제대로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탄소집약도' 뿐 아니라 '기후적인 영향' 또한 중요한 리스크이다.

- 중국 등 개도국이 공급하는 원자재에 대한 고려
- 레저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탄소가 '투입'과정과 관련되어 있음
- 탄소관세의 여부

### 4) 연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CDP와 DB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좋음  
 기후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함  
 에너지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각 산업분야별로 준비할 시기가 되었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과 투자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기후변화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것이 기후변화시대의 투자자로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Tool & Training for Sustainable Finance**

**지속가능금융 위한 환경·사회적 리스크분석 이러닝 코스 (ESRA)**



1995년 부터 52개국 900명 이상이 참여한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사회적 리스크분석 이러닝 코스의 교육일정이 발표되었다. 강사들이 참여자와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는 ESRA 프로그램은 심도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대출이나 투자심사 시 환경·사회적 변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다루며 아래의 다섯 모듈로 이루어진다.

- 1) 지속가능금융 소개 2) 환경·사회적 리스크 식별
- 3) 리스크 분류 4) 리스크 평가 5) 리스크 관리

참가자는 환경·사회적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연습하고, 사례연구분석 뿐 아니라, 자사고객의 실제 이슈를 기반으로 한 연습문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담당강사와 보조강사로 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언어	날짜	Tutor
스페인어	05.10~05.28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Edgar Rojas (Colombia)
영어	05.24~06.11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Mariangeles Camargo (U.S)
스페인어	08.02~08.20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Edgar Rojas (Colombia)
영어	08.16~09.-03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Melissa Makwarimba (Mozambique)
스페인어	11.01~11.19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Edgar Rojas (Colombia)
영어	11.08~11.26	Lawrence Pratt (Costa Rica) and to be confirmed



- 등록방법: 과정 시작 1주 전까지 온라인 form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프로그램: [http://www.unepfi.org/fileadmin/training/esra\\_pamphlet.pdf](http://www.unepfi.org/fileadmin/training/esra_pamphlet.pdf)
- 등록문의: [unepfi@ecofrontier.com](mailto:unepfi@ecofrontier.com)

New publication

## New Signatories



### ◆ Corporación Financiera de Desarrollo S.A.(COFIDE)

- 1971년 창립
- A 등급의 신용기관
- 생산투자부분 (인프라 스트럭처)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전문
- 녹색프로젝트금융 프로그램 시작
- <http://www.cofide.com.pe/>



### ◆ Ecobank Transnational Incorporated

- 1985년 창립 (서아프리카 상공회의소 주도)
- 토고 및 서아프리카
- <http://www.ecobank.com/>

## Signatory Activities



UNEP FI Korea Group member인 국민은행의 KB 탄소배출관리시스템 **KB-CEMS**(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가 2010년 2월, UNEP FI International E-bulletin 에 소개되었습니다.

### What our Signatories are Doing...

#### KB Kookmin Bank launched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2009:** UNEP FI Signatory KB Kookmin Bank has launched its own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 (KB-CEMS) to improve the bank's energy efficiency and resources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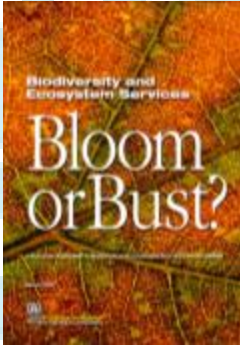
KB-CEMS uses the IPCC's CEF (Carbon Emission Factor) to calculate the bank's total amount energy and resources use for its 1,300 branches. This includes electricity, 1,600 vehicles, heating oil, general LPG, district heating, water supply, copying paper and other items.

This is the first case of a finance sector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launching its own CO2 management system. KB Kookmin Bank is also offsetting any remaining emissions through The Carbon Neutral Forest, a carbon-offsetting programme initiated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using KB Kookmin Bank's social contribution fund.



##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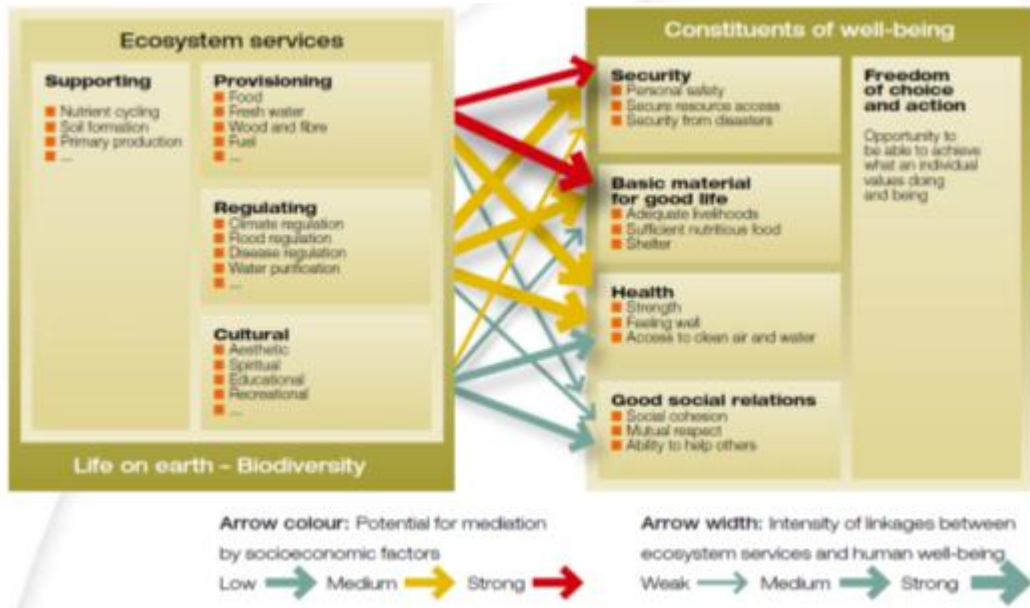
### UNEP FI at 2010 Biodiversity Challenge Conference



2009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UNEP CBD(UNEP 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의 주최로 2010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금융 분야의 주요 아젠다로는 UNEP FI의 보고서인 'Bloom or Bust' 에 기초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의 금융 세션은 50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생태 다양성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금융 업계의 기회와 도전] 이라는 테마로 펼쳐졌다.

특히 '생태다양성과 금융' 세션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컨퍼런스는 생태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원칙을 세우는 데에 좋은 기반이 되었다.

###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BES)



2009년 12월 11일, COP15의 부대행사중 하나로 열린 저탄소 건축 환경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UNEP FI 부동산 워킹그룹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의 주최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기존 빌딩의 에너지 효율향상 그리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회원들과 파트너들간의 논의가 이루어 졌다. 에너지의 40 퍼센트가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건축물 환경에 대한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이번행사의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에서 건축, 재 건축과 보수 그리고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에 이르는 주제로 토의하였다.



## 국내서명기관 활동



### • 하나은행 업적평가대회-국내 첫 탄소중립행사로 진행

하나은행의 업적평가 대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로 행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행사'로 진행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행사에서 사용된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사용하여 대회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화하도록 함.



- 수출회복세 지속에 따른 금융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우리카드 이용고객대상 녹색생활 실천사례 공모전 실시

우리은행은 그린스타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생활 속 친환경 및 녹색생활 실천사례의 모습을 담은 '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디지털 사진 공모전인 '우리카드 환경 이벤트' 실시.

- 올해에도 저탄소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녹색통장과 같은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 밝힘.



- 4월 1일부터 여신금액 80억 원 초과 기업의 **신용평가시 외부기업(에코프론티어)의 환경평가 결과 반영.**
-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국가녹색기술대상 수상기업 등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녹색금융지원 방안 구축을 위한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KB금융아카데미**' 시작-투자은행(IB)과 파생상품, 프라이빗뱅킹(PB) 등 향후 핵심성장 분야의 전문가 양성 목적, 향후 **녹색 금융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할 예정.**



## 국내서명기관 활동



- 선도적인 녹색경영을 위해 은행 전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측정과 상쇄를 위한 탄소숲을 조성하는 활동 계획 발표.



- 삼성화재 CDP(탄소공개프로젝트)서명



-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자전거 타기에 동참하는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 출시  
자전거보험(특약)을 묶어 가입하면 1%의 보험료 할인제공(친환경보험인 '하이라이프 파워 ECO 운전자보험'의 녹색 할인제도에 따른 것). 특히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장기보험인 점이 특징임.



- 하춘수 대구은행장은 지난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우수중소기업 현장인 대구의 대표에너지 기업, 대구도시가스(주)를 방문하여 추진중인 태양열 및 매립가스자원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나눴다.



## UNEP FI 은행 위원회 출범

UNEP FI는 서명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은행권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UNEP FI 은행 위원회는 다국적 기관과 2차 은행,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과 다국적 기업 등 업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39개국의 120개 은행 기관이 포함된다.

은행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모든 은행 분야에 자리잡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 UNEP FI Korea Group 소식

- 2010년 6월 16(수)~18(금), 서울에서 P8과 UNEP F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nnual Conference 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UNEP FI 행사는 16/17일 이틀 간 진행예정**
- ESRA(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Workshop은 오는 9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2/4분기 KG 미팅: 6월 중 일산 KB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녹색금융 관련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 UNEP FI 홈페이지상의 서명기관 영문 프로필 업데이트 완료.
- APTF CC (APTF 컨퍼런스 콜) 에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2/4분기 UNEP/FI Intern선발 : 전종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卒)

내용문의 : 전종화 UNEP FI 인턴 ([unepfi@ecofrontier.com](mailto:unepfi@ecofrontier.com))

담당자 : 김민영 컨설턴트, 녹색금융팀, 녹색금융·전략사업본부, (주)에코프론티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6층, 에코프론티어 [www.ecofrontier.com](http://www.ecofrontier.com)

Tel: (+82 2)3153 7846 Fax: (+82 2) 3153 7702/3 E-mail: mykim@ecofrontier.com